

麗末鮮初 轉換의 양상과 논리*

김 성 룡**

차 례

- | | |
|------------------|------------------------|
| 1. 여말선초를 재론하는 이유 | 2.3. 권근과 전환의 논리 |
| 2. 여말선초 전환의 양상 | 3. 여말선초 전환론과 신흥사대부의 이념 |
| 2.1. 정도전과 참여의 논리 | 4. 맺음말 |
| 2.2. 길재와 은거의 논리 | |

1. 여말선초를 재론하는 이유

여말선초는 문학사의 구분으로 보아 중세 후기에 속하는 시기로 분류된다. 물론 중세 후기는 고려 중기 무신의 난으로부터 시작해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규보 시대로부터 목릉의 성세까지의, 한국 문학사에서는 대단히 의미 깊은 변환이 일어나는 420여 년의 전 시기를 포괄한다. 그 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여러 개로 하부의 시간 단위가 구획되는데 이 자리에서 다룰 여말선초도 중세 후기를 구성하는 그 하부 단위의 하나이다.¹⁾

* 이 연구는 호서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호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중세후기라는 시대구분을 도입한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권에서 자세히 논했다. 조동일교수는 고려 무신란 이후부터 임진란까지를 중세후기로 규정했으며 본 논문도 이에 따랐다. 다만 조동일 교수가 중세 후기를 둘로 나누어 고려말까

여말선초의 시대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시기 전체의 양상을 보아줄 필요를 느낀다.

무신란 이후 대몽 투쟁이 종식하기까지 약 90 년 동안은 김극기, 죽림고회 문사들, 그리고 이규보, 최자 등이 등장했던 기간이다. 그리고 이어진 몽고 지배기. 잠시 동안의 여백을 거친 다음 (민중의 문학인 고려 속요가 상층부에 수용된다는 점이 이 짧은 시기의 특징일 것이다.) 등장한 안축, 이제현, 최해 등 이충국가 시대의 고뇌를 갖고 성리학을 이념의 기반으로 갖고 있는 문인들이 이 시기의 전형적인 문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민왕의 자주노선과 함께 고려말의 개혁을 모색하는 시기가 이어진다. 이색 및 그와 교유했던 정몽주, 정도전, 이숭인, 권근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 문인들이다. 이들은 고려의 개혁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문제를 놓고 대립 분열되었다. 그런 분열과 혼란을 겪고 난 다음의 조선 초기의 관각 문인들. 그들 대부분은 혈연이나 학연으로 권근과 연결되며, 권근을 통해 이색과 연결되고, 그리고 이색을 통해 이제현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현, 이색, 권근의 시대와 이념적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끝으로 길재의 제자인 영남 사람들과 권근의 제자인 관각 문인들의 대립과 갈등의 기간, 그리고 이어진 목릉의 성세. 아마 지금까지 일별해 온 중세 후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문인들이 이 시대에 집결될 것이다. 이 시기 중에서도 여말선초의 인물들은 고려와 조선의 전환을 겪었으므로 다른 어떤 시기보다 전환의 의미가 깊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말선초의 전주부에 속한 이제현이나 그 시기의 끝자락에 선 서거정과 같이 여말선초의 주인공이 아닌 인물들에게도 역사의 전환이나 그에 따른 역사 선택의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민왕의 자주노선을 지지하느냐의 여부라든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수용해야 하느냐의 여부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모두 개인 및 일족의 명암을 갈라놓는 중대한 결단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역사 선택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이나 중압감이 여말선초의 인물들에 비해 적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느낌은 비교할 수 없어도 그들이 선택해야 했던 문제의 편쪽이나

지를 1기, 조선건국 이후를 2기로 구분한 것과 문학담당층의 등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 석연하지 않다. 이에 대해 논리와 증거를 보충해 따로 다루겠다.

깊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역시 여말선초에 국가 선택의 문제는 그 전환의 의미가 여타의 전환과는 비교할 수 없다. 더욱이 여말선초의 전환은 중국에서도 원-명 교체로 이어지는 세계사적 전환과 맞물렸으므로 더욱 뜻깊다. 말하자면 여말선초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깊이와 넓이를 갖고 개인에게 전환의 선택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보다 가장 전형적인 전환의 양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여말선초 시대를 살아간 문인들의 전환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논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소기의 성과가 우리 문학사의 전환론의 논거와 양상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이 격동의 시기가 우리 문학사의 다른 격동기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조심스럽게 추론코자 한다.

2. 여말선초 전환의 양상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말선초의 문인들은 고려말과 조선초에 활동했던 인물들이라고 해야 옳다. 그렇게 보면, 여말선초에는 이색으로부터 정몽주, 박의중, 박상충, 정도전, 정충, 이숭인, 권근 등 고려말 조선초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아간 인물들이 놓여 있다. 이들 중에서 조선 건국에 참여한 인물이 있다면 이들은 여말의 시대를 마무리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건국 후에 개국 공신으로 위차된 52분이 여기에 포함될 터인데 정도전은 개국의 1등 공신이라는 점에서든 개국 후 문물 기틀을 바로 잡는데 주력했다는 점에서든 이들 그룹을 대표하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권근은 건국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정도전 개혁의 끝에서 개혁을 완수한 인물로 여겨진다. 이들은 고려말 조선초에 이중적인 활동을 했던 인물들인데 이들은 분명 건국 주역들과는 다른 집단으로 여겨진다. 반면 초야에 묻혀 조용히 여말선초를 살아간 인물도 있다. 새로운 국가가 개국한 다음에도 초야에 묻혀 지낸다는 것 자체가 내연(內燃)의 불꽃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이들도 여말선초의 또 다른 지성을 대표한다. 동문선에 단 한편의 글도 선발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 당했던 원천석이 가장 대표적일 터이지만, 그 외에도 목은이니 포은, 아은, 도은 등은

(隱)자로 돌림해 자호한 팔은(八隱) 그룹도 있다. 이들을 언필칭 팔은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후대의 부회일 가능성이 짙지만 『팔은집』(八隱集)이 유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도 하나의 집단 의식 내지 연대 의식을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세 집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 정도전과 참여의 논리

이성계는 비의(非衣)·주초(走肖)·삼전삼읍(三奠三邑)이 건국을 도울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²⁾, 이 비의·주초·삼전삼읍이란 배극렴, 조준, 정도전을 뜻한다. 이들이 조선을 건국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할 것이 이미 정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비로운 꿈 이야기를 빈 것이리라. 이들이 태조를 도와 개국하는 데 기여한 개국공신 52분 중에 그 공이 가장 혁혁했다는 데에는 별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태조도 이들의 은공을 황하보다 크고 태산보다 영원할 것이라고 하고 개국공신 1등에 위치를 정했다.³⁾

이날 개국공신으로 위차된 52분 중 1등 공신은 모두 17분, 그 중에서 문신 출신은 배극렴 외 모두 12분이다. 이들 중에 그 내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 문집이 남아 있는 예는 드물다. 예컨대, 태조의 꿈에까지 나타난 배극렴의 경우,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었다.”고 하는데⁴⁾, 학술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말에 목사, 윤, 원수 등을 거쳐 선초에 수상이 된 인물에 학식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아하다. 동문선에 그의 시문이 선록된 시문이 한 편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가 갖추지 못했다는 학식은 아마도 문학적 소양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준, 정도전, 남재, 정탁 등 현재 남은 문집류에서 이들이 고려말 격동기에 조선으로 그 향배를 정하게 된 전환의 논거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의 문물 제도 치고 정도전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을 정도로, 건국 후 나라의 기틀을

2) 조선왕조실록, 태조 원년 7월 병신조.

3) 위의 책, 태조 원년 8월 기사조.

4) 위의 책, 태조 원년 11월 계묘조. 배극렴의 졸기.

잡는 데 주력했다. 위로는 나라의 법전으로부터 군사의 진법, 이단에 대한 태도 등 그리고 그 아래로 각 궁전의 액호에 이르기까지 정도전은 마치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국가의 규모를 번듯하게 만들었다. 그 만큼 그는 전환기의 처세론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보인다. 다음은 그의 생각을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낸 글이라 자주 회자되었던 글이다.

생각하건대, 국가가 과거를 보여 선비를 뽑는 것은 참다운 선비를 얻어서 지극한 정치를 이룩해 보자는 것이다. 국가에서 구하는 바가 매우 부지런하고 바라는 바가 심히 중한데 과연 우뚝하게 뛰어나서 국가가 바라고 구하는 뜻을 저버리지 않을 자가 누구란 말인가? 이따금 묘당의 위에서 경세재민을 하고 천리 밖에서 적의 예봉을 꺾어 사직과 민생의 의지가 되는 자가 모두 과거를 경유하지 않고 나오기도 하지만, 저 유자(儒者)라고 호칭하는 자들은 헛갓과 낡은 옷으로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 움츠렸다 하며 그저 관망만 하여 겨우 자기 몸이나 보호할 뿐이라면 비록 말단의 문서나 다루는 자리에 앉을 지라도 오히려 의견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눈을 부릅뜨고 담력을 내보이며 의연히 조정에서 서서 정치하는 방법을 요리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는가?⁵⁾

요점은 시대와 인재로 간추려진다. 즉, 현시대에는 바야흐로 경장(更張)의 시대에 들었으므로, 이제 조정에서 자기의 힘을 다하여 경세제민에 나설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자라고 일컫는 이들은 눈치나 살피면서 자기 몸이나 보호하는 데 급급하여 이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의 유자와는 다른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도전은 이 글의 대상에게 지금까지 사태를 관망하거나 일신의 안녕을 꾀한 소극적인 선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지치(至治)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자의 상을 갖추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이 글의 대상 조박(趙璞)은 우왕 2년(1376)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랐다. 훗날 태종이 된 이방원과 동서간이어서 이성계를 따라 전국에 공을 세워 개국 1등 공신에 위차된 인물이다. 개국 1등 공신인 조준이 그의 재종숙이며, 2등공신인 조견(趙涓)은 그의 재종형제이다.⁶⁾

5) 鄭道傳, <送趙生赴學序>, 『국역 삼봉집』, 1-224. 해석이 자명해 논란이 없는 것은 각주에서 원문 인용은 생략한다.

6) 개국 2등공신에 위차된 조견은 사실은 그 친형 조준과 의견을 달리해 조선의 개국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에는 은거하고 끝내 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 정부에서는 그를 불러내기 위해 직접과 공신의 위치를 연속해서 내렸다.

우왕이 등극해 공민왕 말기의 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으리라 기대했지만 사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인임이 등장해 신흥사대부들의 열망에 배치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인데 이는 신흥사대부들에게는 공민왕대보다 더한 지련이 닦칠 것을 의미했다. 마침내 정도전도 개경에서 쫓겨나 향후 10년간으로 이어진 고달픈 유적(流謫)의 길에 올랐다. 그 동안 소독이 있었다면, 나주 회진현에서 하층민과 교유하고, 삼각산·부평·김포 등지에서는 권문세가에 의해 후진 교육이 좌절되는 경험을 맛보아 고려말 혼란기의 개혁 의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던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우왕 9년(1382) 함주에 있던 이성계를 만나 자신의 혁명에 대한 의지를 적어두고 갔다. 그리고 이는 고려 5백년 역사의 마지막 곡이 연주됨을 알리는 것이 되었다.

이인임의 등장과 이 글의 논지는 앞으로 정도전 및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인물들의 운명을 미리 알려주고 있었다. 정도전이 경장의 시기라고 생각했던 우왕 초기의 시대는 사실은 경장의 시기가 아니었으며, 눈을 부릅뜨고 담력을 내보이며 의연히 조정에 섰던 인물들은 모두 편척되고 말았다. 이렇게 경장의 시기가 아닐 때 정도전은 흰 갓과 낡은 옷으로 조심조심 고개만 내었다 움츠렸다 하지 않았다. 그는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신산(辛酸)한 유적(流謫) 생활을 견뎌 갔다.

정도전은 이 신산한 유적 생활을 감내하면서 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그 이념을 몸에 간직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생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일찍이 유(儒)와 이(史)를 논한 설에 이르기를, ‘도덕이 몸과 마음에 온축(蘊蓄)한 것을 유라 이르고, 교화를 정사에 베푸는 것을 이라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 온축한 것이 바로 시용(施用)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그 시용도 온축에서 미루어 나가는 것이고 보면, 유와 이는 한 사람이며 도덕·교화는 두 가지 이치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세도(世道)가 낮아짐으로부터 도덕은 사장(詞章)으로 변하고 교화는 법률로 바뀌어서, 유자와 관리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유는 이를 속되다 배척하고, 이는 유를 썩었다고 나무라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교화는 도무지 쓸모 없는 물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에 간혹 유술(儒術)로써 이치(吏治)를 가식하는 자도 있으나 역시 자기 사욕만을 채우려는 데 불과할 뿐이다.⁷⁾

7) 鄭道傳, <送楊廣按廉東正郎詩序>, 위의 책, 1-231.

관료와 유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생활 태도를 보이는 서로 구별되는 집단이 아니라 관료의 잠재적 형식은 유자이며, 유자의 실현 형상은 관료이므로, 이 둘은 한 인간의 인생 속에서 서로 전화(轉化)되어 나타날 형식이며 따라서 그들의 내면 세계라는 것도 내면의 수양과 그 발현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유학자들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말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것은 정도전 나름의 세상 진단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장이란 문학이라는 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곱고 공교로운 말을 얹어내는 것을 뜻하는 것 같다. 말세가 되니 정작 도덕적 온축이라든가 경세의 실력을 배양하는 데 힘을 기울인 인재는 나타나지 않고, 곱고 공교로운 말을 얹어내는 데 급급한 인물들이 나타나, 이들이 조정을 차지하고서는 법률에 의지해 고식적인 정치를 하므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 뒤에 정도전은 관료 선발 격식을 바꾸면서 “문생과 좌주”로 얹힌 고려말 과거제도를 비난하는 데⁸⁾ 이는 사장을 통한 선발이 급속히 군집 의식을 갖고 파당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에게서도 개혁을 기대할 수 없지만, 유술(儒術)을 익힌 선비들에게서도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위 글에서 유술이란 유학의 통치 기술쯤으로 여겨지며, 이치(吏治)란 관리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것은 유학의 통치 기술을 배워 이로써 관료로 성장한 계층들, 요컨대 신흥 사대부들조차 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유술의 지치를 실현할 인재를 사장만으로는 선발할 수 없고, 도덕적 온축의 여부로써 선발해야 마땅하다.⁹⁾ 그러나 고려말의 상황에서 이는 난망한 일이었다. 그래서 지식인의 내부 정화를 위해서도 개혁은 필요했다.

8) 조선왕조실록, 태조 즉위년 7월 정미의 과거 제도에 관한 교서. 이 글은 정도전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9) 위의 태조 즉위년 7월 정미의 즉위 교서에 따르면 문과의 경우 중앙과 지방에 학교를 두어 인재를 양성한 다음 그 중에서 경의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올리고, 경서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의 통달 여부의 고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합격한 사람은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책문(策問)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하여 이렇게 삼장(三場)을 통하여 합격한 사람 33인을 선발하도록 했다.

2.2 길재와 은거의 논리

고려말 유자라고 한다면 백성의 고통과 시대의 운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면 이 또한 시대에 대한 하나의 태도를 결정한 것이며, 이는 자신의 부정적 참여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이므로, 고려말 전환의 한 양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고려말 절의파로서 보통 목은, 포은, 야은의 삼은(三隱), 또는 이들을 포함한 『팔은집』(八隱集)까지 낸 팔은(八隱) 등을 손꼽는다.¹⁰⁾ 그 외 원주에 은거한 원천석(元天錫), 두문동에 은거한 72현 등이 더 있다. 사실 은으로 자호한 인물이 고려말에 급격히 늘는 것도 심상하지 않은 일이다. 팔은 외에도 초은(樵隱), 야은(野隱), 어은(漁隱), 호은(毫隱) 등이 있어 고려말 위기의 정치 상황에 걸맞게 은거는 하나의 세계관이었다.

길재는 정몽주가 죽음에 이르면서 특별히 불러 충절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다.¹¹⁾ 그런데 그는 아들이 조선왕조에 출사할 때는, “내가 고려를 향해 충성을 바치는 것을 본받아 너희는 조선의 임금을 섬겨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¹²⁾, 이는 팔은의 한 사람인 박익이 자기의 자식으로 하여금 조선 왕조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거나¹³⁾, 이색의 후손들이 대거 조선 왕조에 출사해 성황을 이루었던 것 등과 매우 흡사하다. 자신은 고려에 출사했으므로 역성 국가

10) 팔은은 목은, 포은, 야은 등을 포함, 송은(松隱) 박익(朴翊), 동은(桐隱) 이재홍(李在弘), 만은(晩隱) 홍재(洪載), 휴은(休隱) 이석주(李錫周), 성은(成隱) 김대운(金大潤) 등이다. 李蒙寧, <墓碣重建文>, 朴翊, 『松隱先生文集』, 권3. 한국문집총간 5-244 하우.

11) 柳台佐, <行狀>, 朴翊, 위의 책, 권 3. 한국문집총간 5-237하우. “포은 선생이 죽음을 맹세하던 때 선생(=박익)과 길재, 이색 등 여러 분을 부르며 충의로써 당부했다.(圍隱誓死之際 呼先生及治隱牧隱諸公 以忠義勉之)”고 한다. 후대의 건강(牽強)일 가능성도 있다.

12) 朴瑞生, <行狀>, 吉再, 『治隱先生言行拾遺』, 권 상, 한국문집총간 7-399상좌. “汝當效我向高麗之心 事汝朝鮮之王 汝父之心 外此無望”

13) 朴翊, <遺書>, 위의 책, 권1. 한국문집총간 5-231상우. “나는 왕씨의 혼령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는 이씨의 재상에 있어라. 남의 신하가 되었다면 충성을 다하라. 선천 후천이 다르고 아비와 자식의 시대가 다르구나.(吾歸王魂 汝在李世 既爲人臣 忠則竭力 先天後天 父子異時)”

인 조선에 출사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아들들은 고려에 출사하지 않았으니 조선 왕조에 땀땀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를 위해 절개를 지키는 것이 사적 윤리 판단이라면, 조선 왕조의 건국은 역사적 대세라는 것인데, 이렇게 사적 윤리와 역사적 대세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서 정도전과 또 다른 부류의 은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길재가 갖고 있던 은거관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의 문집은 『야은선생언행습유』(冶隱先生言行拾遺) 3권과 『야은선생속집』(冶隱先生續集) 3권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 후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칭송의 시편들을 지은 것을 모은 것이고, 정작 길재 자신이 지은 글은 얼마 안 된다. 그 얼마 안 되는 글 중에서 은거에 관한 글은 <산가서>(山家序)와 <후산가서>(後山家序) 두 편이다.

대저 젊을 때 공부하고 자라서는 행하는 것은 옛 도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금의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몸을 깨끗이 하고 멀리 떠나거나[고도원인(高蹈遠引)] 결신난륜(潔身亂倫)하는 것과 같은 것이 어찌 군자가 하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생긴 때부터 안자처럼 누항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며, 때가 부합하지 않으면 태공처럼 바닷가에서 은거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낚시하고 밭가는 것을 어찌 감히 기롱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지정 중에 여기에다가 집을 정해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났다. 속객은 오지 않고 세속의 일은 들은 바 없으니 나와 짝하는 이는 산승 뿐이고 나를 아는 것은 강의 새 뿐이다. 명리의 영화와 노력은 잊었고 태수의 존망에 맡길 뿐이다. 게을리지면 낮잠을 자고 즐거우면 읊조린다. 그저 일월이 왕래하고 냇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을 볼 뿐이다. 친구가 나를 찾으면 탑의 먼지를 쓸어내고 응대하며 하찮은 무리가 문을 두드리면 상에서 내려 맞이하니 가히 군자가 화이불류(和而不流)하는 기상을 볼 수 있다.¹⁴⁾

고도원인(高蹈遠引)한다는 것은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고고한 삶을 말하며, 결신난륜(潔身亂倫)이란 자기 한 몸만을 조출하게 간직하기 위해 세상을 버린 사람들을 말한다. 이 또한 은거의 한 양상이나 군자는 이런 은거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군자는 안희처럼 자수(自修)하면서, 여상(呂尙)처럼 낚시질을 하면서, 부열(傅說)처럼 밭을 갈면서 유위(有爲)의 일을 기다리며 은일하는 것이다.

14) 吉再, <山家序>, 위의 책, 권 상. 한국문집총간 7-392하우~393하우

지정 년간은 1341년부터 1367년까지, 그 지정 년간에 집을 짓고 산 지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길재의 생년은 1353년, 그가 출사한 해는 1386년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그가 출사하기 훨씬 전 20대의 젊은 시절에 쓴 글로 보인다. 은거는 출사를 위한 준비 과정처럼 보인다. 그가 여상이나 부열을 끌어낸 것은 은거의 진정한 의도는 출사하는 데 있음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은거는 고도원인하고 결신난류일 수 없었다. 어떤 객이 와서 “그대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자 길재는, “저 위에 조정에 있으면 그 백성을 근심하고 멀리 강호에 있으면 그 임금을 근심하나니, 나는 백성을 근심하고 임금을 근심하는 자이다.”라고 했다. 강호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걱정하기는 묘당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길재는 전원 속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밝게 읊어냈다. 그 중에서도 봄의 장면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저런 바람이 일지 않으니 무릎이나 운신할 이 좁은 곳도 편안하고 밝은 달이 뜨락에 이르면 혼자 천천히 걷는다. 처마 밑 빗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혹 배개를 높이하고 꿈을 꾸고 산에 눈발이 몰아치면 혹 차를 끓여 혼자 마신다. 이제 봄날이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면 새들은 어울려 노래하고 초목이 무성해지며 흰 솜은 무럭무럭 자라난다. 버드나무 꽃송 날리고 복사꽃 오얏꽃이 활짝 핀다. 한 두 명의 동지들과 같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쏘이고 싶고, 때로는 매와 개를 데리고 흰말에 올라 금 화살을 날리기도 하고, 때로는 술과 안주로 명아주 지팡이를 잡고 꽃과 대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¹⁵⁾

그러나 아름다운 봄날은 가는 법. 길재가 기다리던 때는 오지 않고 문하주서(門下注書)의 벼슬로서 종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는 공양왕 2년(1390)에 이색의 전송을 받으며 선산으로 은거했다. 이번 은거는 이전의 은거와 다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은거에 대한 관념 또한 달라졌다. 이 기간 동안 집필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후산가서>의 끝을 이렇게 맺었다.

지금 불행히 하늘의 근심을 만나 10년의 공업이 쓸어버린 듯하구나. 아아 하늘이 실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나에게 무엇이랴 할까. 이에 방황하고 느꺼워 하며 피하던 것을 바꾸려 하니 숨어 스스로 깨우치는 것만 못하여 달

15) 吉再, 위의 글 같은 곳.

이 걸린 땀방이 덩굴에 관을 걸고 맑은 바람을 읊조린다. 음양 사이를 굽어 보고 한 세상 소요하여 이 때의 질책을 받지 않고 바른 성명을 길이 보전한다. 그렇다면 푸른 하늘을 넘어 우주 밖으로 나가리니 어찌 천사만종의 부귀를 부러워하겠는가.¹⁶⁾

여기서는 여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시대는 바뀌고 운명도 바뀌었으며, 마음먹었던 것도 수정해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은거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앞서 정도전은 유자와 관리의 관계를 돌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제 은거하는 선비는 푸른 하늘을 넘어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에, 천사만종을 받아먹으며 사는 삶, 즉 관료의 삶과는 사뭇 다른 것이 되어야 했다. 그것은 음양을 굽어보고, 한 세상을 소요하며, 시대의 질책을 받지 않고, 성명을 바르게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유위(有爲)]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이 살면서 가져왔던 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 숨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천석은 시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을, “문을 닫고 옛 것을 보며 가슴에 품은 흥을 물(物)에 부치며 산다.”¹⁷⁾고 그려보았다. 길재도 천명이 그렇다면 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고려말의 상황에 대해서 개인의 의지와 시대의 대세가 서로 어긋날 때 권토중래의 의지를 보이거나 적극적 투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 은거하는 전환의 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3 권근과 전환의 논리

조선이 건국할 무렵 권근은 이색과 마찬가지로 고려말 개혁파, 좁게는 정도전 일파의 활동에 대해서 반대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고려말 이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전제개혁을 반대했다. 그로 인해 그는 정도전·조준 등의 역성혁명파에 기획되는 바 되어 한동안 유배·은둔생활을 해야 했다. 거기까지는 이색의 행적과 같다. 그러나 그는 조선이 건국된 이듬해 계룡산에 행차한 태조를 만나

16) 吉再, <後山家序>, 위의 책, 같은 곳. 한국문집총간 7-393하우~394상우

17) 元天錫, <杜門覽古 寓物興懷 此不遇時者之所爲也 因賦古器 作四絕以寓歎>, 『耘谷行錄』, 권 5. 한국문집총간 6-211상우.

<계룡일송>(鷄龍一頌)을 지어 바쳤고, 정총과 함께 <정릉묘비명>(定陵墓碑銘)을 지어 바침으로써 조선 건국에 뒤늦게 합류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이렇게 뒤늦게 참여한 것을 진정함으로써 개국 원종 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아냈다.

그런 권근의 전환을 두고 원천석은, “머리 허연 양촌이 절의를 말하니 세상 어느 때인들 어진 이가 나지 않겠는가.”고 조롱했다. 그런 조롱을 받았으면서도 권근의 전환이 빛나는 이유는 정도전, 남은, 정총 등 조선 왕조 창업의 일등 공신들은 상당수 정변이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사라졌고 권근, 정ियो, 하륜, 이첨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조선이 건국하는 동안에 참여를 미루다가 뒤늦게 합류했던 인물들이 수성기 조선 왕조의 문물 정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데 있다. 그래서 권근의 전환은 권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늦게 조선에 참여한 인물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전환이라는 표현에 가장 적합할 것 같다. 혈통 상으로 이들은 삼한세족(三韓世族)·대가세족(大家世族)이라 불렸던 집안 출신들이다. 그리고 건국 초의 조선 정부는 이들을 와해시키는 정책을 집요하게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출사했다면, 이는 혈통 상 배치되는 역사적 선택을 어느 시점에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권근은 고려 구귀족 출신의 인사들 중에서는 가장 혁혁한 존재라고 여겨진다. 그는 조선 최초의 문형에 올랐고, 그의 후손·인척들이 조선 초기의 요직들을 장악했으며, 그리고 그의 학문은 조선 중기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학통을 형성하고, 가문을 일으키며, 명예로운 문인으로 대접받았다면 그는 여말선초 전환의 대표로 손색이 없다.

사군자가 세상에 나서기도 하고 들어왔기도 하여 그 법도가 일정하지 않다. 요컨대 시기에 맞고 의리에 합당하게 할 뿐이다. 세도(世道)가 쇠퇴한 때가 되어, 권간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탐관오리가 함부로 진출하게 되면,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선비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멀리 떠나[고도원인(高蹈遠引)] 적막한 곳에서 빛을 감추고 있다가, 세운(世運)이 흥왕하여 정화가 아름다워지면, 갓을 털고 갓끈을 떨치며 모두 조정안에 진출하여, 서로 지력을 다해서 공업을 성취시켜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인 군자는 반드시 세도가 높고 낮음을 보아서 나서거나 들어왔거나 한다. 만약

시기와 의리를 헤아리지 않고 진퇴를 하면 벼슬하는 사람에게는 녹을 탐낸다는 조롱이 있게 되고, 들어앉은 사람에게는 자신만 깨끗이 한다는 책망이 있게 되는 것이니, 비록 청탁의 차이는 있지만 의리에 맞지 않기는 일반인 것이다. 지난번에는, 시운(時運)이 비색함을 알아 몸을 수습하고 물러갔으며, 부귀를 하찮게 여기고, 현편을 초개처럼 여기어, 그 고매한 기풍과 따를 수 없는 행적에 진실로 아득하게 더위잡을 길 없었다.¹⁸⁾

한마디로 전환기에 서 있는 선비들은 시대를 잘 살피서 시대가 태평한 때라면 용감하게 나가 벼슬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태평한 때를 기다리며 빛을 감추고 은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일지사로 알려진 길재는, '군자는 고도원인(高蹈遠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권근은 고도원인이야말로 난세에 처한 선비가 취할 처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흥미로운 대조를 보인다.

난세에는 고도원인하면서 군주와 백성을 돌아보지도 않다가 치세가 되면 나아가 벼슬을 하겠다는 것은 편안할 때를 타 벼슬하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반론을 예상하고 권근은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두 가지 논거를 마련했다. 첫째, 선비를 지칭하는 유(儒), 사(士), 군자(君子) 등의 용어에 감정적인 가치를 부여한 수사를 붙여, 사군자(士君子)라거나, 현지지사(賢智之士)라거나, 현인군자(賢人君子)라거나 하여 표현한다. 보통 선비가 아니라, 군자인 선비, 현명한 선비가 대상이라는 말이다. 둘째, 그가 말하는 세도(世道), 세운(世運), 시운(時運) 등은 모두 시대의 운수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그는 현명한 군자라면 자기 시대의 운수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시대의 운수가 과연 흥성한 시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색한 때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서 처신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녹을 탐한다는 조롱을 받거나 자기 몸만 깨끗이 하려한다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시대의 운세는 막히기도 하고[비(否)], 활짝 펼쳐지기도 한다[태(泰)]. 그러나 시대의 운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 시대에 적합한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시대의 운세를 개척하는 일 만큼 시대의 운세를 살피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헌 것과 낡은 옷으로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 움츠렸다 하며 그저 관망만 하여 겨우 자기 몸이나 보호할 뿐”인 자세

18) 權近, <贈孟先生詩集序>, 『국역 양촌집』, 3-61~64.

로써 과감한 일에 앞장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이 고민을 권근이 비교적 강한 어조로 표현했을 뿐이고, 정이오, 이침, 하륜 등은 출처의 문제에 대해 그다지 깊이 있게 생각한 것 같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운수 소관인 것이고 사람은 거기서 그 운수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라고. 권근의 뒤를 이어 문형이 되었다고 하는 변계량¹⁹⁾은 이렇게 말한다.

천하에 사람 생긴 지가 오래 되었는데 치(治)와 난(亂)이 서로 잇따르는 것은 그 기운이 떨어지고 합하는 데 관계된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그 시기를 만난 것이 같지 않은 데 따라서 근심하고 즐겨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 중에 광악(光岳)의 온전한 기운을 타고나면 태평성대를 만나 벼슬이 재보(宰輔)에 이르고 사방에 대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니 기막히게 영화로운 일이 아니냐.²⁰⁾

조선 왕조 건국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기막히게 영화로운 일을 맡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만난 시기가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악지기란 삼광오악(三光五嶽)의 기운, 즉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기운을 말한다. 그 기운이 마침 치세의 시기에 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에 따른다면 이미 사람은 날 때부터 세상의 기운을 자기 몸에도 타고난지라 치세의 기운은 치세의 운명을, 난세의 기운은 난세의 운명을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어서, 권근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기미를 살펴 출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조선 왕조 건국기의 혼란이 끝나고 수성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이들이 출사할 무렵은 마침 시대가 태평한 때, 서운이 퍼는 때, 기운이 합하는 때에 들었다고

19) 변계량을 권근과 같은 관망파라고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는 우왕 11년 정몽주가 주재하던 과거에 급제하여 미미한 벼슬을 했다. 그의 형 중량은 태조의 서형(庶兄)의 사위이었으므로 그의 문중은 조선 건국에 초기부터 참여했다. 형 중량은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던 것으로 보아 개국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인다. 다만, 태종의 말로 미루어(태종 18년 5월 10일 기미) 그는 형과는 길이 달랐던 것 같다. 그는 형의 덕분으로 태조대에 벼슬길을 받았으나, 그다지 드러나는 관직은 아니었으며 그나마 부친의 사망, 형의 몰락 등으로 인해 벼슬길에 나아간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태종이 즉위한 다음 성균관 지체교로 부임하면서부터 비로소 벼슬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20) 卞季良, <宋參贊議政府使庚公奉使朝京詩序>, 『국역 동문선』, 7-349~350쪽.

할 만하다. 이들은 (정도전류의 비난을 무릅쓰고) 시대의 기운을 바꾸어 놓는 일은 포기/외면했고, (원천석류의 야유를 감내하면서) 새 국가에 참여해 자기 일을 찾아 나섰다. 권근이 찾아낸 자기 일은 새로운 국가의 문물을 화려하게 수식하는 문학의 일이었다. 신숙주는 이를 가리켜, “왕의 덕화를 빛냈다(丹青王化)”²¹⁾고 칭했는데 이는 권근 자신도 문사의 힘을 빌어서 왕의 덕화를 널리 알리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던 것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그가 새 왕조에서 힘써야 할 일이라고 찾아낸 것은 바로 문학이었으며 이를 남들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정도전이 규식화한 강경법의 과거 제도를 권근 및 그의 제자 변계량이 제술법에 의한 선발 제도로 바꾸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²²⁾

그렇다면 이들은 문학을 통해 이념을 실천하는 것을 자기들의 장기로 삼았던 부류의 인물들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적극적 현실 개척이나 철저한 현실 외면과는 달리 문장을 통한 화국(華國)의 논리를 실천의 근거로 삼아 정도전의 비판에 답하고자 했다.

3. 여말선초 전환론과 신흥사대부의 이념

정도전은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 남인과 함께 숙청되었고, 그가 지은 외교문서가 문제가 되어 명에 파견되었던 정충은 이로 말미암아 북경에서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개국 공신들은 차례로 쓰러졌다. 수성기에 들면 나라를 열었던 공신 집단이 숙청되는 것은 역사에서 흔한 일이고, 그의 운명 또한 이런 역사의 전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삶이 여말선초에 역성혁명의 주체로서 불꽃같은 삶이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길재는 끝내 조선에 출사하기를 거부하고 선산에 은거해 터를 잡았다. 조선 왕조는 선산에 은거하고 있던 그를 조정으로 불러 올려 벼슬을 내리기도 했으

21) 申叔舟, <權正卿榮親詩序>, 『보한재전서』, 중-235.(은성문화사, 1984)

22) 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 3월 무인. 권근이 권학 방법의 조목을 아뢴 상소문, 태종 17년 5월 갑자. 변계량이 문과 시험의 임문고강(臨文考講)의 규식에 관해 논한 글에서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며, 원주에 있던 원천석을 찾아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기도 하고, 또 두문동에 은거한 72현에게 나오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조선 사회로부터 은거한다는 것 자체가 조선을 거부하는 항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은거는 쉽지 않았다. 이는 조선 왕조의 조정에서 서견(徐甄)의 시에서 트집을 잡아 서견을 죽이기를 청했던 데서 잘 나타난다.²³⁾ 은거를 한다는 것은 이런 위협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재는 은거를 굽히지 않았고, 꼭 실천해야 할 진리는 영남 사람들에게 물려주었다.

정도전이 선종하지 못했던 것이나, 길재가 위협에 시달리면서 은거한 것에 비하면, 권근의 인생은 매우 인상적으로 풍요로움을 구가했다. 그가 조선 왕조 들어 최초의 문형이 되었던 것이나, 뒤에 한산 이씨, 창녕 성씨, 영가 권씨가 서로 인척으로 얹혀 이러저러한 선초의 지성들을 배출했다거나, 그와 향배가 같았던 정이오, 하륜, 변계량, 이첨 등 고려 구신 출신의 집단이 태종 이후 조선 정권을 장악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만 보면 선초에 들어 가장 극성한 집단은 바로 이 권근의 집단인 것처럼 보인다.

언뜻 보면 이 세 집단은 서로 공유하는 면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세 집단이 가장 전형적인 여말선초의 지성의 모습이었음은 분명한 일이다. 그 점을 여말선초의 당대인이 이렇게 묘사한다.

아. 우리 동방의 지역이 먼 변방에 있으나 산수의 아름다움이 천하에 으뜸가므로 그 기운을 받아서 문무의 영재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하늘이 선생을 내신 것은 장차 문장으로 한 세대를 울리게 하려는 것인 지, 도학을 사람에게 전하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차 높은 품치와 우뚝한 절개로 말세를 바로 잡고 박한 습속을 격려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세 가지가 모두 훌륭할 따름이다.²⁴⁾

이 글은 정도전이 회진현에서 어렵게 유배 생활을 하던 때에 저술한 시문을 모은 저술에 그의 동년 친구인 이유(李維[田+柔])가 서문을 붙인 것이다. 정도전이야말로 충신 재덕의 인재라고 서두를 열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신산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학문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23) 조선왕조실록, 태종 12년 5월 경자조. 서견이 고려를 사모하는 내용의 시를 지었으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국문할 것을 청했으나 태종이 이를 말렸다고 한다.

24) 李維, <錦南雜題序>, 『국역 동문선』, 7-263.

를 묘사했다. 그 서문이 이와 같다.

이 글을 주목하는 이유는 정도전에게 야단스럽게 바친 찬사의 내용이 흥미할 만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인재가 어떤 인재들이었는지를 말한 대목을 주목해보자. 첫째, 문장으로 한 세대를 올린다고 했다. 둘째, 도학을 사람에게 전한다고 했다. 셋째, 고풍준절(高風峻節)로써 세상을 바로 잡고 풍속을 격려한다고 했다.

고풍준절의 의미는 높은 풍모와 우뚝한 절개. 이는 길재가 말한 고도원인하고 결신난륜하는 삶과 다를 바 없다. 또 박동량(朴東亮)이 원천석의 시집 서문으로 삼은 <시사서>(詩史序)에서 원천석을 일러 청풍고절(淸風高節)이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용어로써 이유는 몸을 깨끗이 하고 멀리 떠나는 행동 일체를 말하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유가 말한 고풍준절은 길재, 원천석이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삶의 한 형식을 뜻한다고 보인다.

도학을 사람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도 심상하게 볼 것이 아니다. 정도전은, '도덕을 몸과 마음에 온축한 것을 선비라고 하고 교화를 정사에 사용하는 것을 관리라 이른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도덕의 온축과 그 시용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우, 하, 은, 주의 세도가 있으면 기, 고요, 직, 설, 이윤, 부열, 주공, 소공 같은 인물이 있어 도가 행하게 된 것"[<증임진무시서>(贈任鍼撫詩序)]이라고 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유가 말한 도학의 전달이라는 것은 도통(道統)의 심수(心受)라는 의미가 아닌 도의 시행이라는 의미이다.

문장으로 한 세대를 올린다는 것은 일견 문장가를 지칭한다. 정도전은 우리나라의 문학하는 선비[문학지유(文學之儒)]로 을지문덕, 최치원, 김부식, 이규보, 이체현, 이곡, 이인복, 이색, 정몽주, 이승인, 박상충, 박의중, 김구용, 권근, 윤소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었다.[<경산이자안도은문집서>(京山李子安陶隱文集序)] 삼국시대와 고려중기, 그리고 고려말의 문인들을 적시한 것이다. 고려말 문인들은 정도전 당대의 대표적 지성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고풍준절의 인물이며, 도학을 온축해 시행하는 인물이며, 문장의 선비라는 말이다. 정도전에 대한 찬사가 야단스러운 감이 없지 않으나, 그런 야단스러움을 꼬집기에 앞서 한 몸이 이 셋이 다 갖추어질 수 있다는 당대인의 믿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절개를 지키는 선비, 도덕을 시행하는 관리,

그리고 문학을 창작하는 문인의 상이 당대의 지성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었던 믿음을 말이다.

선비는 모름지기 고품준절의 의리관과, 도학 시용의 실무적 능력과 소양. 그리고 문장 제술의 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여말선초를 대표하는 지성들이 이 각각의 세 분야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분열된 데서 볼 수 있듯, 이 셋을 하나로 온축해 간직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역사에서 선택의 문제가 가로놓인다면 더욱 그러하다. 바로 여기에 여말선초가 가지고 있는 지성사적 의의가 있다. 즉, 여말선초는 그 동안 이 세 방향이 한 인물 속에 내재된 통일된 전체일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최초의 시련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여말선초에 들어 비로소 이 셋은 하나의 지성 속에 진정 통합되어 마땅하다는 믿음이 자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합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기에 분열되어서는 안된다는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여말선초 사대부들의 지성은 여러 갈래의 전통이 종합된 것처럼 생각된다. 예컨대, 고려초부터 실시되었던 진사과의 전통으로 문치주의를 내세운다든지, 실무적 관료군이 등장함으로써 관직과 도덕을 분리해 이해하지 않는다는든지(이규보의 경우), 조충전각지도(雕蟲篆刻之徒)로부터 경명행수지도(經明行修之徒)를 분리해 이해하고자 했다는지(이제현의 경우), 성리학의 도입으로 문학은 성정(性情)에서 나오는 것을 강조해 문학의 깊이를 찾고자 했다는지(백문보, 이달충 등의 경우) 하는 노력들은 문학과 정치, 도덕과 실천 사이의 거리를 끊임없이 좁혀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여말선초에 이르러 이런 노력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진리로 확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문학과 철학, 정치와 도덕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두를 통합적으로 갖춘 지식인이 성장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현상을 문학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자면 이는 문학이 철학과 정치, 도덕 등을 통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럴 경우 그 극단은 아마도 문학으로써 그의 철학적 깊이, 정치적 역량, 도덕적 온축의 정도를 다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것은 문학이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는 통로라는 문인들의 이념의 완결된 형태가 될 것이다.

4. 맺음말

문자로 된 문학은 제사장이 아닌 문자 지식인의 문학이다. 문인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체계모니를 장악해 갔다. 이렇게 문인이 사회적 지도층으로 성장하고 영속된 권력을 세습하면서 문자 문학(즉, 기록문학)에 대한 관념도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처음 문자를 이용해 기록하기 시작할 무렵 문자로 된 것은 기껏해야 보존해야 할 문서, 기록, 서류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문자가 막 사용되었을 무렵 문자로 된 문학은 구비문학처럼 음악, 춤, 몸짓 등의 문학 이외의 다른 보조장치를 이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구비문학이 도달한 감동의 깊이, “천지를 감동하고 귀신을 움직이는[感天地 動鬼神]”의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빈약한 것이 실제로는 빈약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야 했을 텐데, 문인은 기록된 것은 기록된 것 이상의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약점을 극복했을 것이다.

기록문학의 주인공들, 즉 문인들은 문학의 문제가 바뀌는 중요한 전환의 기간 동안을 통해 문학의 내밀한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첫 전환은 육두품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구비문학의 감천지 동귀신을 대신할 문자의 신비성, 구비문학의 휘발성에 대한 대립으로 문자의 보존성을 내세운 문인의 역사를 보여준다. 왕거인의 사전,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많은 주사(굿이 아닌 주사)들, 비문의 제작 등은 신비력을 획득하기 위한 문자문학의 투쟁, 문인의 투쟁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세 후기는 문학이 다른 분야를 문학이 압도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그 단초는 이규보였다. 그는 권간(權奸)을 위해 문학을 짓는 한편, 철인으로서 세상의 이치를 깨고자 했다. 이 밖은 이제현, 안축, 최해 등의 고민에 찬 모색을 거쳐 여말선초, 그리고 조선 전기에 이르러 장대한 흐름을 형성한다. 조선 전기 이른바 관각 문인들은 문학을 시대나 인격을 판단하는 상관적 요소들 간의 결정소이자 우세소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문학이 인격이나 시대를 가늠하는 결정소나 우세소의 지위로부터 밀려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보수 반동의 시기를 거쳐 결국 우

세소가 아님을 자인하고 문학이 다양한 사회 문화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조용한 침묵기로 이어진다. 그 끝이 근대문학일 것이다. 이 연구 다음의 과제는 이에 대해 좀더 깊이 논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말선초 시대를 살아간 문인들의 전환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논리를 이해하며, 그 성과로써 우리 문학사의 전환론의 논거와 양상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전환론의 논거와 양상을 치중해, 여말선초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는 데는 미흡한 면이 나타나는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점 역시 새로운 연구로써 보완해야 할 과제로서 생각한다.